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3월 20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서부전선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 역시 조선로동당의 포병무력강화방침을 관철해가고있는 서부전선포병무력의 준비상태를 불의에 검열평가하고 대책하며 전반적부대들을 각성시키는것과 함께 포병훈련의 모든 형식과 내용,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평시훈련을 전쟁에 철저히 대처할수 있는 실용적인 실천훈련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자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기에는 조선인민군 제3군단, 제4군단, 제8군단관하 포병부대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화력임무수행계산까지의 부대별 진출기동정형을 평가하고 추첨으로 정한 사격순차에 따라 각종 구경의 포들로 제정된 거리에서 섬목표를 사격한 다음 사격성과 화력임무수행에 걸린 시간을 종합하여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화선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바람세찬 바다가친지에 모시고 자기들의 전투력을 견열받게 된 서부전선대련합부대 장병



들의 가슴속에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의 격정이 설레이는 파도마냥 세차게 일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감시소에서 포사격대항경기진행순차와 방법에 대한

총참모장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시에 따라 또다시 군단장들이 감시소에서 직접 포병화력을 지휘하였다.

군단장들의 힘찬 사격구령이 포진지들에 가담자 즉시 섬멸의 포구들이 불을 토했으며 목표섬상공에서는 불소나기, 강철우박들이 쏟아져 내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인민군부대들의 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군사정치사업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서부전선포병부대들은 평시훈련을 통하여 다져온 포사격술로 경기에서 놀라운 성적을 보여줌으로써 실전에 대비할수 있게 철저히 준비된 자기들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서부전선의 포병들, 특히는 3군단의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만족하시며 마치고 저격무기로 목표판의 점수를 맞히는것만 같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총참모장은 경기결과에 대한 총참모부의 평가를 보고드리였다.

경기에서는 제3군단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다른 군단들을 눌렀으며 제8군단이 2위, 제4군단이 3위를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제3군단의 전투준비상태에 대하여 너무도 만족하시여 포사격경기에서 놀라운 포사격술을 보여주며 경이적인 성적을 받은 제3군단관하 포병대대에 수여되는 명포수상장에 《대대의 놀라운 전투력에 탄복한다. 대단히 만족하며 특별감사를 준다. 김정은. 2020. 3. 20》이라는 뜻깊은 축하친필을 새겨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인민군부대들의 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군사정치사업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3월 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시범사격구령을 내리시자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속에 주체관들이 눈부신 섬광을 내뿜

으며 발사되였다.

발사된 전술유도탄들은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락각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위력이 뚜렷이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새로운 우리 식 무기체계들의 연속적인 출현

은 우리 국가무력의 발전과 변화에서 일대 사변으로 되며 이러한 성과는 당의 정확한 자립적국방공업발전로선과 국방과학증시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고 우리의 국방과학, 국방공업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신형무기체계들과 개발중에

있는 전술 및 전략무기체계들은 나라의 방위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우리당의 전략적기도실현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어떤 적이든 만약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행동을 감히 기도하려한다면 령로밖에서 소멸할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고, 바로 이것이 우리당이 내세우는 국방건설목표이고 가

장 완벽한 국가방위전략이며 진짜 믿을수 있는 전쟁억제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의 자립적국방공업발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각 국방과학연구부문들의 임무와 군수공업부문의 새로운 투쟁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대동강반에 솟아날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

얼마전에 착공한 평양종합병원건설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정도자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기념하여 몸소 참석하시어 감동깊은 연설을 하시고 건설의 첫삽도 뜨셨다.

지금 강한 전과력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COVID-19》사태로 하여 전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겁잡을수 없이 확산되는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들이 취해지고 지역적, 국가적규모의 봉쇄와 격리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사람들의 해외여행과 입국에도 차단봉이 내려지고 세계경계가 휘저어지고있다. 세계의 눈과 귀는 지금 온통 《COVID-19》사태에 쏠려 있는것이다.

이런 때에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건설이 국가적인 중대사업으로 착공의 첫 발파를 올리였으니 사람들이 어찌 놀라지 않고 격정에 겨워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번져가는 《COVID-19》이지만 공화국에는 아직까지 악성비루스가 들어오지 못하였다. 지금 공화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빈틈없는 초특급방역조치들이 취해지고있는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은 예전그대로 평온하고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는 불안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이고 봉쇄적인 국가비상방역조치를 취해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철저히 막은데 기인된다. 언제나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가장 중요한 국사로 여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과 현명한 평도의 손길에 의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의 안전, 인민의 안전은 굳건히 지켜지고있는것이다.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을 주고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친어머님의 심정으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세계적적인 전염병의 대동강반에서도 끄떡없이 인민들의 더 큰 생명과 행복을 위한 창조적 거창한 작전을 또다시 펼치신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민사랑의 열도가 이처럼 뜨겁지 않다면, 미래에 대한 신심과 략관이 이처럼 확고하지 않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누구도 엄두조차 낼수 없는 일이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겹쳐지는 재난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조선에서는 자연의 재난, 인류의 대재앙도 길들이며 더 큰 행복을 세운으로 창조하고 미래를 웃으며 앞당겨온다. 이것이 회세의 위인을 모신 공화국의 특이한 모습이다.

이 조선을 이끄시는 경에하는 최고정도자검정은원수님의 정치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이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민보건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셨다.

유류아동병원과 류정안과 종합병원, 류정치과병원을 비롯하여 나라의 도처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병원들을 위한 훌륭한 치료기구와 시설들을 마련해주시려고 묘향산의로기공장을 훌륭히 개건하는데만도 얼마나 많은 로고와 심혈을 바쳐 오셨는가. 인민들은 현대적인 병원들에서 돈 한푼 안내고 마음껏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으며 기쁨에 웃고있는데 주시는 사랑도 모자라신듯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때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색과 평도를 순간도 멈추지 않으셨던것이다. 새로 건설할 평양종합병원의 터전을 평양중심부의 명당자리에 정하여주시분도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들마다 수도의 제일 좋은 자리들이 정부청사와 은행, 대기업의 본사들이 자리잡고있다. 그러나 인민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수도의 한복판에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그 창조물도 어디 한둘인가. 인민대학습당과 평양학생소년궁전, 인민문화궁전, 유류관과 청류관, 창광원과 류정원, 룡라인민유원지, 인민극장, 인민야외빙상장, 문수물놀이장...

이제 손으로 다 꼽을수도 없다. 이번에 착공을 선포한 평양종합병원의 터전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위치하고있는 명당자리이다. 그곳에서 서 대동강반을 바라보면 그 건너편에 민수대언덕이 마주 보인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안에서

도 명당자리인 이곳에 우리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크게 건설되는것을 아시면 아마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제일 기뻐하실것이고 우리 인민들도 남녀로소모두가 다 좋아할것이라고 하신것 아닌가.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받기하시고 성대한 착공식도 펼쳐주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그 창조물도 어디 한둘인가. 인민대학습당과 평양학생소년궁전, 인민문화궁전, 유류관과 청류관, 창광원과 류정원, 룡라인민유원지, 인민극장, 인민야외빙상장, 문수물놀이장...

이제 손으로 다 꼽을수도 없다. 이번에 착공을 선포한 평양종합병원의 터전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위치하고있는 명당자리이다. 그곳에서 서 대동강반을 바라보면 그 건너편에 민수대언덕이 마주 보인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시안에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기념하여 몸소 참석하시어 감동깊은 연설을 하시고 건설의 첫삽도 뜨셨다.

지금 강한 전과력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COVID-19》사태로 하여 전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겁잡을수 없이 확산되는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들이 취해지고 지역적, 국가적규모의 봉쇄와 격리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이고 봉쇄적인 국가비상방역조치를 취해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철저히 막은데 기인된다. 언제나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가장 중요한 국사로 여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

안락의 형편을 특 터놓으시며 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슴을 울렸다. 《인민을 위하여 떨고 험난한 길을 헤쳐오시며 눈부신 창조물들을 수없이 세워주시고도 그 모든것을 큰 산속의 모래알처럼 여기시며 더 높은 리상과 포부를 내세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을 우리러니 온 세상이 부러움에 천년만년 복락할 이 나라의 후손만대가 눈앞에 환히 보인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김정은위원장은 착공식 연설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수십차례나 언급하였다.》, 《인민의 건강증진이 최우선 무라고 밝혔다.》, 《평양종합병원을 착공한 배경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있다.》 등으로 보도하면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하신것은 인민사랑, 인민중시를 최고의 정책으로 내세우셨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평하였다.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 온 나라 인민이 안겨 살기에 존엄과 행복의 오늘도 좋지만 미래는 얼마나 더욱 밝고 창

창할것인가. 그이의 높은 리상이 실현되는 이 땅에서 인민의 웃음소리 날로 높아가고 행복의 별천지가 늘어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에서 평양종합병원이 일떠서면 우리는 우리 인민의 소중한 건강과 안녕을 보다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얻게 될것이며 이를 중심적인 기지로 하여 나라의 보건부분을 크게 비약시킬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인민을 위한 대건설의 발파소리는 울리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과 정에 감복한 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제 머지않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선진적인 종합병원터전 한뼘터가 일떠서게 될것이며 세계는 또 한번 조선의 변모되는 모습을 깊은 감동속에 바라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본사기자 김철진

본사기자 김철진

본사기자 김철진

본사기자 김철진



매혹과 흠모

누구도 따를수 없는 높은 리상과 목표

얼마전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서는 장쾌한 발파의 폭음이 강산을 진동하며 울려 퍼졌다.

경에하는 최고정도자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기념하여 몸소 참석하시어 감동깊은 연설을 하시고 건설의 첫삽도 뜨셨다.

지금 강한 전과력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COVID-19》사태로 하여 전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겁잡을수 없이 확산되는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들이 취해지고 지역적, 국가적규모의 봉쇄와 격리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이고 봉쇄적인 국가비상방역조치를 취해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철저히 막은데 기인된다. 언제나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가장 중요한 국사로 여기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

있는 전정역제력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어찌 이뿐이라. 경에하는 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져 온 나라에 체육의 대중화바람이 불고 국제체육무대에서 랍흥색공화국이 가 련속 오르고있다.

이 모든것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리상과 목표가 어떻게 하나하나 빛나는 현실로 되고있는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화폭들이다. 그이의 리상과 목표는 언제나 과학적인 실현방도와 실천활동이 동반된 현실적인 것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참다운것이다.

중요한것은 자력이다. 그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간다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장구한 반의 세투쟁사의 갈라에는 지난 세기 일제식민지배의 암담한 세월 자력독립의 기치를 들고 과감히 싸운 조선국민회의 공적이 뚜렷이 새겨져 있다.

20세기 10년대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국내외에 있던 반일운동단체들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조직으로 활동한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에 의하여 결성되었다.

김형직선생님은 지원의 큰 뜻을 품으시고 환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애국자이시었다. 일제가 총칼로 조선을 강점한 후 가슴아픈 체험과 진기한 탐구로 독립운동의 방향을 무르익히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시었다.

그것은 온 겨레를 불러일으켜 원수를 멸망시킬만큼 힘을 기르고 힘만 있으면 능히 강적을 물리칠수 있는 것. 이 일은 하루이틀에 성취될수 없기때문에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 지원의 사상이었다. 여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혈불굴의 정신이 담겨져 있었다.

지원의 뜻을 지니시고 험난한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나간 김형직선생님께서는는 민족을 단합된 하나의 애국력량으로 묶어주시기 위하여 1917년 3월 23일 평양학당골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었다.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었다.

조선국민회의 줄기찬 활동에 의해 광범한 군중이 단합된 힘으로 일제에게 맞선 투쟁의 불꽃이 피어났다. 백산부사단을 비롯한 조선국민회의 무장조직들이 과감한 활동으로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조선국민회의 지도밀에 날을 따라 반일운동이 확대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었다.

조선국민회의 줄기찬 활동에 의해 광범한 군중이 단합된 힘으로 일제에게 맞선 투쟁의 불꽃이 피어났다. 백산부사단을 비롯한 조선국민회의 무장조직들이 과감한 활동으로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조선국민회의 지도밀에 날을 따라 반일운동이 확대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었다.

조선국민회의 줄기찬 활동에 의해 광범한 군중이 단합된 힘으로 일제에게 맞선 투쟁의 불꽃이 피어났다. 백산부사단을 비롯한 조선국민회의 무장조직들이 과감한 활동으로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시

3월의 봄우뢰소리

김윤식

달리는, 다르게는 결코 터칠수 없는 크나큰 격정 화산처럼 터져왔어라 평양종합병원건설의 첫삽을 뜨시는 위대한 어머니를 우리러 천만의 심장을 목매어 꿰뚫어라

《아, 우리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깝없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새 병원건설을 세상에 선포하신 우리의 원수님

아직은 부족했던 한두가지 아니여라 부닥치는 난관과 예로 어이 없으랴 허나 인민의 건강 인민의 밝은 웃음을 위해 수도의 한복판 명당자리에 명사복무의 대건설전투를 펼치시였거니

친어머님의 자애로운 정을 담아 그이 착공식장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 그것은 우리 원수님의 심장이 터친 불같은 진정

인간사랑의 위대한 선언!
인민만세의 우렁찬 메아리!

《번영》과 《복지》를 목재지게 광고하며 《제재》와 《봉쇄》에 대달리는 극악한 무리들 머지않아 보게 되리라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 솟아날 또 하나의 창조물앞에서 수취와 모멸에 몸부림치리라

오, 인민사랑의 최고화신 우리 원수님을 모신 이 땅에선 눈부신 사면들 끝없이 무수히 태어나려니 세인의 한없는 경탄과 부러움속에 행복을 노래하며 기쁨의 세월 겪으며 천년을 만년을 예서 살고싶은 우리의 이 마음

어머리로 따르고 하늘처럼 받들며 그이 온정 천만년 길이 전해갈 뜨거운 심장들이 목매어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는 내 조국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진 아, 3월의 봄우뢰소리여라!

자 일제는 우리 민족의 반일 민족해방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탄압에 매달렸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7년 11월 일제에게 체포되어 옥중생활을 하게 되었고 출옥후 지원의 높은 뜻을 실현하는 투쟁에 한몸바치실

이 독립의 새봄을 안아오시려는 선생님의 굳은 맹세를 담은 뜻깊은 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전국 각지에 투쟁의 씨앗을 뿌려 나가시였으며 무산혁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어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참다운 길을 열어 놓으시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이 자력독립의 기치 밑에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개척할수 있게 한 님이요 의지이며 원동력인 지원의 사상은 백두산절세위인들에 의하여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며 공화국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여왔다.

어느 해인가 위대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세계적인 사업이라고, 일찌기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지원의 사상은 수령님의

김현아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전조선적인 민주주의통일정부수립을 위하여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의 성과를 지지하는 평양시민들의 군중집회

싸운 화순탄광 로동자들과 그 주변농민들 5 786명이 시명하여 회의 앞으로 보내는 편지에는 남조선인민들의 일치한 소원을 담았다. 그리고 같이 지적되어 있었다.

《...여러분! 외세가 주둔하여 침략정책을 실시한이래 우리 로동자들은 조국의 통일자유, 민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

막대한 희생을 입어가면서 싸우는 우리 로동자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40여년간 주권을 빼앗긴 민족으로서 바다 건너 왜놈들의 야만적 압박과 착취를 우리 부모형제들이 얼마나 희생되었으며 얼마나 신음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뼈속에 사무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례를 다시 보지 않고 압박되고 착취받는 독립국가로 건설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골수에 사무치는 압박과 착취의 원한은 오직 남북통일의 자주적인 민주주의국가가 건설되어야만 다시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

끝으로 선명들이 우리의 선두에서 조국의 민주주의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다가 적탄에 맞아 성스러운 붉은 피를 흘리며 마지막으 부르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모두 같이 불러주십시오.》

반외세자주통일투쟁의 성스러운 길에서 싸우다 희생된 동지들이 남기고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며 남조선인민대표들은 승명을 마음을 담아 8월 25일에 360명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선출하였다.

북반부지역에서도 함께 남반부지역에서도 커다란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남북총선거에 기초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창설되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직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의 8월총선거투쟁은 거대한 조국통일운동사에 뚜렷한 한페이지를 새겼다.

본기자 김영진

민족대단결의 송고한 경륜을 지니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전에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많은 해내의 동포들을 만나주시었다. 그가운데는 남조선의 명망 높은 문인환복사도 있다.

어느 해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의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인환복사를 친히 만나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인환복사의 평양행을 몸소 반가워하시면서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집견석상에서 문인환복사는 《주석님! 조국을 통일하자면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겠는데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라고 자신의 심층을 서슴없이 아뢰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오래동안 해답을 찾을수 없는 골치거리였던것이다. 조국을 통일하자면 분명히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하겠는데 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의 정권이라 지주, 자본가들과는 불상용적일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는 남조선의 그 많은 중산층들, 자본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오래동안 고심하던 사람에게서만이 찾아볼수 있는 진지하고 심층한 태도로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환하신 미소로 그의 마음속에 고여있는 고민을 날려버리시며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같은 외세를 등에 업고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매관자본가는 반대하여야 하지만 민족적관심을 가지면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려 하는 민족자본가는 다포섭해야 한다고 명백히 갈라주시었다.

단순에 모든것이 석연해지며 머릿속에서 선이 쭉그어지고 통일의 밝은 전망이 그의 눈앞에 확안되었다.

문인환복사는 북반부에서는 감격에 목메이며 흥분에 겨워 자기의 심층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주석님! 그렇게만 하면 민족의 대단결은 문제없습니다. 민족의 단결이 곧 조국통일의 힘입니다. 그러나 벌써 조국통일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나는 자본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주석님을 찾아왔는데 민족자본가들과도 단결할수 있다고 하시니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온갖 시름을 털어버린 사람처럼 고요한 평온이 깃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끝 모르는 기쁨에 겨워 조용히 웃고있는 문목사의 눈빛에서 통일을 위해 바쳐진 그의 고된일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를 헤아리시었다. 문목사는 웃음을 거두며 얼굴에 근엄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이 명확한 답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서울로 돌아가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겠습니다.》

문인환복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을 받아안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을 결의다지며 평양을 떠났다.

남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10년의 징역형이 들켜 위태로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후날 일군들에게 문인환복사와 두번 만나 식사도 함께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그가 10년 형기를 마치고 82살이 된다고 하시며 안색을 흐리시었다.

일군들은 통일에국인사를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심연이 헤아려져 뜨거워오는 격정을 갈라주시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한번 인연을 맺으신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고 보살피주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었다.

전영민

민족분열을 고정화하는 범죄적인 《5.10단선》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본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이었다.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책동은 민족분열의 위험이 더욱 커진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북조선에서는 남조선에서 《단독정부》를 세울것이 아니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써 전조선정부를 세우는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온 민족의 의사를 대표하는 합법적국가주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게 되었다.

1948년 6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에서는 전조선정부를 세우는데 대한 북의 제안이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위기를 뚫고나가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라는것을 한결같이 강조하였으며 남북조선대표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

민회의를 창설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를 수립하며 최고인민회의와 공화국정부는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도록 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력사적결정을 열렬히 지지하였으며 내외분렬주의세력들의 폐로와 폭압속에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추진명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야수적폭압만해도 남조선인민들의 연설 투지를 꺾지 못하였다.

그들은 공장, 농촌, 가두와 지어는 감옥에서까지 인민대표선출을 위한 선거선전사업과 서명투쟁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8월 9일 서울 통산역구내에서 한 선거선전원은 수천명의 력객들앞에서 남북통일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에 찬성하라고 연설하였으며 이때 반동경찰들이 달려들자 군중들이 경찰들을 막아나서면서 연설자를 보호

하였다. 선거투쟁을 벌리다가 체포된 진주군녀맹위원은 약착한 고문으로 7시간만에 절명하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영등포의 한 로동자는 매우 고고한 조건에서 80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부산방직공장의 한 여성 로동자는 혼자서 1 3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전인민적선거투쟁에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시민, 기업가,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인민들이 높은 열의를 안고 참가하였다. 하여 세계선거력사상 류례없는 약조건에서도 인민대표선거는 커다란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남조선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77.52%가 선거에 참가하여 1 080명의 인민대표들을 선출하였다.

이어 해주시에서 8월 21일부터 25일사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선거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가 진행되었다.

반외세투쟁의 날에 퍼홍리며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오늘도 사 람들이 추억하는 첫 인민배우

황철, 그의 이름은 공화국인민들속에 잘 알려져있다. 그는 유명한 연극배우였고 연극연출가이기도 하였다.

해방후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는 《항쟁의 노래》, 《백두산》, 《리순신장군》을 비롯한 많은 연극들에서 주역을 맡아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다. 《춘향전》의 변학도역 등 예술영화들의 감독과도 그의 재능있는 삶이 스며들었다.

황철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속에 문학예술부문의 책임직에서 일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도 사업하였다.

예술인으로서 가장 값진 삶을 누린 그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것은 해방후 역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열리던 시기였다.

당시 서울에서 외세의 조선반도지배배움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여 인민들을 투쟁으로 불러일으켰다는 죄 아닌 죄로 하여 《백병이》 딱지가 붙어 은신해있던 황철에게 북조선에서 열리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에 참가하라는 초청장이 가달게 되었다.

해빛도 스며들지 못하는 음달된 곳에서 차갑게 얼어붙던 그의 가슴은 금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얼마후 은정어린 초청장을 가슴에 품은 그는 평양을 향해 서울을 떠났고 모란봉극장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여 아버지수령님의 귀중한 교시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렇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평양에 남아 그토록 열망하던 무대예술창조사업을 본때있게 해보고싶은 절절한 소망이 쇠물처럼 끓어번

지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황철동무의 소원이 평양에 남아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무대예술창조사업을 하는것이리라면 그 소원을 풀어주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던 그가 서울에 나가면 연기활동을 할수 없을것이라고, 황철동무의 소원대로 그가 평양에 남아있도록 하여야겠다고 교시하시었다.

이렇게 되여 그는 공화국의 따뜻한 품에서 예술창조 활동을 마음껏 벌리게 되었다.

당시 국립극장 배우가 된 그는 연극 《항쟁의 노래》에 출연하여 맡겨진 역할상을 훌륭히 하여 새 사회건설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몇달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일군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황철의 일가식술을 데려오도록 하시고 그들의 살림집까지 마련해주시었다.

남조선에서 유명한 배우였지만 세방조차 제대로 구할수 없던 한해에 몇차례씩 이사를 해야 하였고 끼니걱정으로 마땅한 할 일 없던 황철은 따스한 온기가 흐르는 여러칸의 방과 갖가지 가구들, 차곡차곡 모여놓은 이불이며 우백미가 가득차있는 쌀독을 보자 너무나도 감격하여 눈시울을 적시었다.

그날 그는 안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다짐하였다. 《여보, 장군님께서 계시여 내 집도 있고 무대도 생긴

것이 아니요. 내 꼭 장군님의 이 언덕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연기훈련에 더욱 열중하였다.

그 날에 지금까지 답습해오던 연기의 낯은 틀인 신과 사물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사물주체의 유기체와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피라게 노력하였다. 그는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다섯번의 중형공연에서 주인공, 주역을 맡아 수행하였다. 그의 출연한 연극들을 보아주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역인물들의 감정을 능숙하게 잘 표현한다는 과분한 치하를 주시었다.

그해에 진행된 8.15해방 4돐기념 전국문학예술축전에서 그는 연기 1등상을 받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남조선에 나가 전선무공영웅을 하던중 그는 갑자기 날아든 적폭격기들의 무차별적인 폭습에 오른팔을 잃게 되었다.

그가 중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전선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배우의 생명을 위하여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리하여 국가와 인민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가벌치절할 전황의 나날 한 평범한 연극배우를 위해 포연서린 전선길로 사랑의 구급차가 달려오는 꿈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마침내 그가 소생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전과 같이 연기를 할수 있게 의수를 잘해주어야겠다

고 하시면서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대대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황철은 오열을 퍼뜨렸다. 폭격에 잃은 팔때문에 이제는 것처럼 사랑하는 무대를 떠나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가슴 한구석이 빙그렁거렸던것이다.

(아 장군님, 이 사랑에 무엇으로 다 보답할단 말입니까?)

부끄럽게 흐려지는 그의 눈앞에 재능은 있어도 꽃피울수 없었던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황철은 땅국의 비운이 절제 드리웠던 1912년 1월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가난한 가정의 둘째아들로 출생하였다.

그가 겨우 다섯살 잡히던 해에 어머니는 앓다가 사망했고 아버지도 인차 세상을 떠나갔다.

졸지에 고아가 된 그는 누이와 형을 따라 큰아버지의 집에 얹혀살았다. 그런데 누이가 출가한 후 의지가 되던 형마저 어린 그를 남겨둔채 운명하였다.

그는 살길을 찾아 고향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바다 건너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서울로 부푼청마냥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속에서도 한가지만은 목숨처럼 버릴수 없었으니 그것은 어려서부터 품어온 배우가 되려는 희망이었다.

그는 무대막뒤에서 연극이 출연하는 배우들에게 대사를 읽어주느라 연극대본을 읽어주기도 했고 어느 계기에는 대담하게 연극

의 주인공역도 맡아서 수행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기도 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배우로서의 두각을 나타냈고 훌륭한 연극배우가 될 희망을 안고 《조선연극단》과 동양극장 산하의 극단인 《청춘좌》 등에 들어가 배우생활을 하였으며 1939년 9월 《아랑극단》을 조직하고 단장이 되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배우들의 처지는 척박한 땅에 떨어진 불행한 씨앗과 다를 바 없었다.

그후 해방은 되었지만 남조선에 기여든 외세의 군화발에 민족문화는 무참한 짓밟혀졌고 진보적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은 탄압당하였고, 황철도 무대를 버리고 은신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그랬던 자기가 지금은 어떤 인간으로 되었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의 가슴속에 재능의 나래가 세차게 퍼덕거렸다.

국가의 보살핌속에 외국에서 의수를 하고 돌아온 그는 더 높은 연기기를 소유하기 위해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는 그에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1952년에는 공화국의 첫 공훈배우칭호를, 1955년에는 첫 인민배우칭호를 안겨주시었다.

이렇게 그는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공훈배우로, 인민배우로 되는 남다른 영광을 지니었다.

남 그는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자욱자욱을 돌이켜보면서 해빛과도 같은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에 대해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꼈으며 숨

도 물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교육문화성 부상의 중요직책을 맡겨 문학예술부문사업전반을 보도록 하려고 한다고, 부상의 직책을 맡으면 연기활동을 더는 할수 없게 되는것으로 아쉽게 생각할수 있는데 무상으로 사업하면서 필요할때에는 연기도 할수 있고 방송소설도 읽을수 있으며 연출도 할수 있다고, 부상이라고 하여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법은 없지 않다는고 뜨거운 사랑을 담아 교시하시었다.

일생동안 무대를 떠나고 싶지 않아하는 그의 소원까지도 깊이 헤아려주시어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가 부상사업을 하면서 국립극장 총장사업을 겸하여 맡아보도록 해주시었다.

하여 그는 때로는 배우가 되어 무대에 나섰고 때로는 연출가가 되었으며 때로는 방송소설작가로서 되어 청취자들로부터 아낌없는 절찬을 받기도 하였다.

그처럼 열정에 불타던 그에게 불치의 병이라는 무서운 악몽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황철동무를 꼭 살려야 한다고, 그를 어떻게 하나 살려야 한다고, 그 동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깝것이 없으니 약도 제일 좋은것으로 쓰고 정성을 다해서 그를 꼭 살려야 한다고 몇번이나 당부하시었다.

그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들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정말 아까

운 동무를 잃었다고, 재능있는 연출가를 잃었다고 가슴아파하시며 일군들에게 황철동무가 사망한것과 관련하여 신문에 부고도 내고 장례를 사회장으로 성대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을 만경대혁명학원 보내주고 유가족들을 잘 돌보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본기자 김영진



황철 선생

공화국의 사회주의 본래와 대공모

오늘 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매 나라마다 자기의 고유한 본래와 풍모가 있다. 해당 나라나 사회의 본래와 풍모는 사회를 이루는 매 인간들의 정치적사상적, 도덕적준비정도와 그 인간들의 결합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것은 공화국의 사회주의 본래이며 대공모이다. 공화국인민들은 사회주의의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집단의 단결된 위력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쳐왔으며 오늘도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일하고 생활하는 집단주의 미풍을 높이 발양해 나가고 있다. 집단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 공화국의 참모습이며 공화국의 위력은 곧 집단주의 위력으로 되고 있다. 최근년간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고립압박책동속에서

도 삼지연시, 양덕은천문화휴양지와 같이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귀중한 재부원이 세상에 보란듯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것은 단합된 인민대중의 높은 열의와 창조적행위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공화국의 독특한 모습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단결과 협조,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가장 훌륭히 구현할 수 있게 한다.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스스로 없이는 부르는 이 부름은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모든 사회성원들의 고유한 생활방식으로 되어 있는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는 사실상 남이란 없다. 동지적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일심단결의 화원인 공화국에서 남을 위해주는 미덕은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으로, 고결한 이유로 간주되고 있다. 화상을 입고 입힌 한 생면부지의 화원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부를 서슴없이 바치고 뜻밖의 재난을 당한 가정을 찾아 식료품과 생활용품들을 아낌없이 안겨주는 사람들, 나이많은 전쟁포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친자식, 친부모가 되어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면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응당했으므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공화국인민들이다. 처녀의 몸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되어

주고 수년간이나 길지 못하는 어린이를 등에 업고 학교에 다니면서 끝끝내 그가 제발로 대지를 활보할 수 있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 너교원에 대한 이야기, 갱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몸을 바쳐 사람들을 구원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의 주인공들도 다 공화국의 평범한 인간들이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당한 한 노동자처녀에게 고운 얼굴을 되찾아주기 위해 기나긴 세월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의료인들과 특류영예군인의 안해가 되어 30여년 세월 불같은 헌신과 애국의 길을 걸어온 화안청년단장의 김춘화녀성에 대한 이야기는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의 고유한 본래와 대중적의 발전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꽃피고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대중적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집단주의의 기풍은 사람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고무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누가 보진말진, 알아주진말진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목숨까지 희생하는 애국자들의 대부대, 미공선구자들의 대부대가 있는 것도 공화국이 그토록 굳건하고 위력한 리유리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의 본래인 집단주의의 기초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운명으로 결어하는 사회집단으로 결합되게 하는 정신적紐대이다. 태양을 떠나 만발하는 화원을 생각할 수 없듯이 공화국의 사회주의대가정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새대를 이으며 푸른 하늘가에 더 높이 울려 퍼지는 것은 인간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공화국을 가장 아름답고 화목한 사랑의 화원으로 가꾸어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긍지높은 현실이다. 이 땅의 천만사람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의 열화같은 사랑의 세계는 온 사회를 령도자와 사상과 뜻과 정을 함께 하는 혼연일체의 결정체로 강화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되고 있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인민의 혼연일체, 이것은 집단주의의 최고정화이며 이러한 단결을 가진 사회주의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도, 파괴되지도 않는다. 하기에 국제사회가 공화국을 가리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심단결의 나라》, 《일심단결은 조선사회의 가장 큰 위력》, 《일심단결의 힘으로 전진하는 불매의 강국》이라고 부러워하고 칭송하는 것이다. 백명일

도 다들바없다고 생각한다. 문득 나의 머리속에는 열마진 TV에서 본 이인자들의 모습이 불꽃 떠올랐다. 자기 나라를 떠나 살길 찾아 낯선 이역땅에 와서 저저마다 먼저 배에서 내리겠다고 헤매비는 수난자들의 가슴에 다들바없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높이는 것이 자존이라 함은 남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받아 존재하는 것이 의존이라 하겠다. 전자는 자주와 존엄을, 후자는 예속과 굴종을 의미한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크기로 지배사슬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존을 지키고 빛나고 있다는 말처럼 쉽지 않다. 강권과 전횡의 산물인 제

자 존의 최강국. 지금 공화국인민은 《우리의 전진을 저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는 뚝고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정면 돌파전, 그것은 자주의 힘, 일심단결의 힘, 자력강화의 힘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공화국 특유의 자존방식이다. 자주, 일심단결, 자력강화는 공화국의 전 력사에 관통된 자존의 정신이고 전통이며 원동력이다. 공화국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단 한번의 오류와 탈선이 없이 오직 승리의 불멸침로로 따라 질풍노도로 전진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존의 정신과 전통,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본성적요구이지만 세계를 둘러보면 대국들의 횡포에

서 인민의 서글픈 행렬에 끼우게 되었고, 저 어린 생명이 바로 나왔다. 단련 나는 지금 어떤 땅에 서있을 것인가. 나를 알아 풀어주고 보살펴준 조국이 없었다면 분명 나의 운명도 황량한 사막우에 뿌려진 씨앗처럼 불행과 수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태어나 지금껏 생의 걸음 걸음에 웃음과 행복만을 얻어주며 나의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고마운 내 조국. 오늘도 이 땅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자애로운 어머니 품속에서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희망

의 노래를 활짝 펼치고 나라의 역군으로 역세게 자라나고 있다. 말그대로 북한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자기들을 풀어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조국을 역세게 떠받들어 나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마음속에서는 조국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숭엄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나도 내 삶을 보살펴준 어머니 조국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생토록 참되게 살리라고. 류현의



평양의 문수지구에 위치한 대성백화점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봉사자로서 다양한 품을 한껏 내놓고 있다. 그 안대를 받으며 백화점 1층에 들어서니 상품진열 방법과 형식이 다양하고 눈맛이 있게 꾸러진 매대들마다 손님이 자기의 기호에 맞는 상품들을 골라 밀치에 담고 있었다.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들로 가득 채워놓은 것 같았다. 우리에게 늘 수영원은 개업초기에 비해 훨씬 많은 생산단위들에서 인민들의 다종다양한 상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그 중에서도 급급체육인종합식품공장, 락연식료기공공장, 오일건강음료종합공장을 비롯하여 국내의 이름있는 식료기공장에서 생산한 빵과 과자, 참쌀튀김, 즉석국수, 음료들을 손님이 특별히 잘 사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새형의 신발갈래와 호홉기양양화복제, 말린 송이버

섯을 비롯한 여러가지 산나물들도 눈길을 끌었다. 대동강구역에서 산다는 리순녀녀성은 풍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한 물비누, 세척제들을 사용하면서부터 피부가 맑아지고 세탁과 세척이 잘되는 것이 알리고 하면서 국내의 소문난 상품들이 다 여기에 모인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1층에는 주야간매대도 꾸러져 있었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학부장 윤시남선생은 이곳에서 음식들을 사가거나 주문하여 봉사받고 있는데 보기에 더 먹음직스럽고 그 맛이 아주 좋을뿐 아니라 봉사원들도 친절하여 자주 이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백화점의 다른 층들도 돌아보았다. 이곳 백화점의 2층에 있는 매대들에서는 전기제품, 섬유제품, 수공예품, 화장품, 건제품을 비롯한 상품들을 종류에 따라 구획을 지어놓고 봉사해주고 있는데 《봄향기》, 《은하수》 화장품

들과 《푸른 하늘》액정TV, 초콜렛제품들과 공예품들의 수요가 높다고 한다. 3층의 매대에는 귀금속장식품, 시계, 신발, 가방, 혁띠, 체육기재 등 인기있는 명상품들이 부류별로 진열되어 있었다. 명상품에 대한 인기가 어떤가 하는 물음에 이곳 봉사원은 결혼식이나 환갑을 비롯한 뜻깊은 날들에 선물할 기념품들을 고르는 손님들이 매대를 찾곤 한다고 말했다. 4층과 5층에 꾸러진 식당에서는 전통적인 민족음식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요리들을 봉사해주고 있었는데 부페트형식의 봉사와 음료봉사로 하고 있었다. 편의시설과 유희오락시설들을 갖추어놓고 다기능화 된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곳 백화점의 모든 봉사와 경영활동이 수좌화, 정보화되어 있어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주고 있었다. 봉사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생활필수품으로부터 세계적 명상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들이 그치지 않고도 먹음직스럽고 그 맛이 아주 좋을뿐 아니라 봉사원들도 친절하여 자주 이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백화점의 다른 층들도 돌아보았다. 이곳 백화점의 2층에 있는 매대들에서는 전기제품, 섬유제품, 수공예품, 화장품, 건제품을 비롯한 상품들을 종류에 따라 구획을 지어놓고 봉사해주고 있는데 《봄향기》, 《은하수》 화장품

본사기자 리광훈

봄이 왔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잠자던 벌레들도 우렁성리에 놀라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춘분이 가까와오던 날에 우리는 나무를 심러 산에 올랐다. 아직은 쌀쌀한 겨울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봄이라 하지만 풍겨오는 봄향기에 취해 열성스레 구멍이를 파고 있는데 누군가 벌써 씨앗이 나왔다고 하는 소리에 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땅길면을 뚫고 머리를 빼꼼히 내민 연푸른 새싹. 《이게 무슨 씨앗인가?》 불현듯 단견이 물음에 누군가는 이 주변엔 밤나무가 많기 때문에 밤나무씨앗일 것이라느니 또 누군가는 분명 진달래나무씨앗일 거라느니 하며 성수가 나서 자기 주장들을 내세웠다. 이제야 겨우 반쯤도 못되게 나온 씨를 두고 밤나무일지, 꽃나무일지 단정키는 어려운 법이다.

《밤나무이든 꽃나무이든 여하튼 좋은 땅에 뿌리내렸으니 아마 푸르실정하게 잘 자랄거야.》 나는 저도 모르게 입속말로 따라와보았다. 좋은 땅! 그렇다. 나무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야 잘 자란다. 온 나라 인민이 애국의 후더운 마음으로 나무모들을 정히 심고 가꾸는 조국산천이니 이 새싹도 잘 자라 거목으로 되리라. 그러나 이 씨앗이 비옥한 토양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 움튼다면... 분명 새싹의 운명은 달리 될 것이다. 똑같은 씨앗이라 해도 어떤 땅에 뿌리내리는가에 따라 거목이 될 수 있고 말라나 가지를 펴보기도 전에 시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을 어찌 자연의 리치라고만 하겠는가. 사회적존재인 인간의 운명

우리를 맞아주느라 불러준 노래에 우리는 매혹되었다. 그날부터 2주일간 노베스안에서는 언제나 노베스안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지도원선생님은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조국을 가르쳐주었으며 학생들은 지도원선생님이 배워주는 조국을 온몸으로 느끼고 큰소리로 함께 노래하였다. 노래소리는 이역에서 나서자란 우리 학생들과 조국을 이어주었다. 《일본에 가서도 조선사람임을 잊지 말고 총련의 때, 애국의 대를 이어나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여라. 그리고 우리 함께 조국에서 나눈 정을 잊지 말아라. 나는 조국에서 동무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다.》 지도원선생님이 하는 당부들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조국땅위에 메아리쳤다. 도교조선중고급학교 교원 리경주 《조선신보》에서 전제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높이는 것이 자존이라 함은 남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받아 존재하는 것이 의존이라 하겠다. 전자는 자주와 존엄을, 후자는 예속과 굴종을 의미한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크기로 지배사슬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존을 지키고 빛나고 있다는 말처럼 쉽지 않다. 강권과 전횡의 산물인 제

자 존의 최강국. 지금 공화국인민은 《우리의 전진을 저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는 뚝고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정면 돌파전, 그것은 자주의 힘, 일심단결의 힘, 자력강화의 힘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공화국 특유의 자존방식이다. 자주, 일심단결, 자력강화는 공화국의 전 력사에 관통된 자존의 정신이고 전통이며 원동력이다. 공화국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단 한번의 오류와 탈선이 없이 오직 승리의 불멸침로로 따라 질풍노도로 전진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존의 정신과 전통,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본성적요구이지만 세계를 둘러보면 대국들의 횡포에

서 인민의 서글픈 행렬에 끼우게 되었고, 저 어린 생명이 바로 나왔다. 단련 나는 지금 어떤 땅에 서있을 것인가. 나를 알아 풀어주고 보살펴준 조국이 없었다면 분명 나의 운명도 황량한 사막우에 뿌려진 씨앗처럼 불행과 수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태어나 지금껏 생의 걸음 걸음에 웃음과 행복만을 얻어주며 나의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고마운 내 조국. 오늘도 이 땅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자애로운 어머니 품속에서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희망

의 노래를 활짝 펼치고 나라의 역군으로 역세게 자라나고 있다. 말그대로 북한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자기들을 풀어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조국을 역세게 떠받들어 나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마음속에서는 조국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숭엄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나도 내 삶을 보살펴준 어머니 조국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생토록 참되게 살리라고. 류현의



호느낌소리, 그리고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 2019년 여름, 2주일간 걸친 조국방문일정을 끝내고 이제 일본으로 향하게 되는 우리 방문단을 태우고 평양국제비행장으로 향하는 《조청애국》호 베스안은 온몸 눈물바다가 되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눈시울을 적시고 조국의 안내지도원선생님과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지도원선생님이 배워준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직동으로 2시간이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멀리 중국을 돌아 무려 13시간이나 걸쳐 겨우 우리 나라에 도착했을 때, 지칠대로 지친 우리를 《그리운 조국을 찾아온 학생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며 반갑게 맞아준 지도원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의 다정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기쁨의 환호성을 올렸다. 그리고 지도원선생님이

우리를 맞아주느라 불러준 노래에 우리는 매혹되었다. 그날부터 2주일간 노베스안에서는 언제나 노베스안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지도원선생님은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조국을 가르쳐주었으며 학생들은 지도원선생님이 배워주는 조국을 온몸으로 느끼고 큰소리로 함께 노래하였다. 노래소리는 이역에서 나서자란 우리 학생들과 조국을 이어주었다. 《일본에 가서도 조선사람임을 잊지 말고 총련의 때, 애국의 대를 이어나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여라. 그리고 우리 함께 조국에서 나눈 정을 잊지 말아라. 나는 조국에서 동무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다.》 지도원선생님이 하는 당부들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조국땅위에 메아리쳤다. 도교조선중고급학교 교원 리경주 《조선신보》에서 전제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높이는 것이 자존이라 함은 남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받아 존재하는 것이 의존이라 하겠다. 전자는 자주와 존엄을, 후자는 예속과 굴종을 의미한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크기로 지배사슬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존을 지키고 빛나고 있다는 말처럼 쉽지 않다. 강권과 전횡의 산물인 제

자 존의 최강국. 지금 공화국인민은 《우리의 전진을 저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하고는 뚝고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정면 돌파전, 그것은 자주의 힘, 일심단결의 힘, 자력강화의 힘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공화국 특유의 자존방식이다. 자주, 일심단결, 자력강화는 공화국의 전 력사에 관통된 자존의 정신이고 전통이며 원동력이다. 공화국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단 한번의 오류와 탈선이 없이 오직 승리의 불멸침로로 따라 질풍노도로 전진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존의 정신과 전통,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본성적요구이지만 세계를 둘러보면 대국들의 횡포에

서 인민의 서글픈 행렬에 끼우게 되었고, 저 어린 생명이 바로 나왔다. 단련 나는 지금 어떤 땅에 서있을 것인가. 나를 알아 풀어주고 보살펴준 조국이 없었다면 분명 나의 운명도 황량한 사막우에 뿌려진 씨앗처럼 불행과 수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태어나 지금껏 생의 걸음 걸음에 웃음과 행복만을 얻어주며 나의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고마운 내 조국. 오늘도 이 땅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자애로운 어머니 품속에서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희망

의 노래를 활짝 펼치고 나라의 역군으로 역세게 자라나고 있다. 말그대로 북한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자기들을 풀어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조국을 역세게 떠받들어 나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마음속에서는 조국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숭엄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나도 내 삶을 보살펴준 어머니 조국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생토록 참되게 살리라고. 류현의

세계가 놀라는데가 바로 그것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불허하고 그 어떤 정치지진이나 경제풍랑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 제도에 있어서 탈선하지 않는 나라,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남을 군사위협도 자위의 역력력으로 물리치고 자주권과 존엄을 산악처럼 지켜내는 나라, 대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력사의 흐름을 주도해가며 강국들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기지의 나라. 19세기말 조선을 탐방한 유럽의 한 작가는 《호미와 황새총, 이것이 봉건수레를 끌고가는 조선의 모습》이라고 평한 적이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공화국은 사실상 위대하고 행성의 절대병기들을 소유한 군력으로 강대하며 마를 줄 모르는 자립적민족경제의 지력으로 위풍당당하다. 지난해 백두산기슭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행성을 진감시켰다. 삼지연, 중평, 양덕... 곳곳에 웅장하게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바라보는 공화국인민의 얼굴마다에는 환희와 긍지가 가득하다. 그들의 웃음비끼는 눈물에 희약의 고난속에 창조한 기적과 승리의 만단사연이 담겨져 있다.

물 한방울에 우주가 비친다고 한다. 지금 백두산으로, 《백두산대학》으로 달려가는 공화국인민의 발걸음에서 더 밝은 레일에도 향한 공적투쟁과 전진속도, 무한대 힘의 원천도 알 수 있다. 정의의 힘으로 온갖 불의를 쳐물리쳐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뜻이 나아가는 담차고 강인하고 거대한 공화국의 모습이다. 하기에 세인은 적대세력들의 반공사대입찰책동은 한계

에 이르렀지만 조선의 자존은 무한하다고 격찬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인민의 정면 돌파전은 추상적이거나 막다른 선택이 아니다. 자존을 잃은 번쩍거리는 번신이나 배부른 노예살이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강국을 위한 공화국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표출이다. 제힘으로 승리하고 제손으로 번영을 가꾸어가는 공화국은 자존의 최강국이다.

령에 따라 동족대결의 미친 춤을 추는 곰주노릇을 하고 있다. 경제는 경제대로 《재벌전횡을 넘어 외자전횡의 부당한 경제체제》를 이루고 《외자수혈》이 옮기면 죽시에 실신, 마비에 들어간다. 《민생》, 《복지》의 간판아래 1%와 99%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사회가 량분되어 있다. 《세계화》의 랑수속에 민족적인 것은 《구시대적》 민족적으로 몰락하고 외세의 힘이 힘쓸고 있어 우수한 민족어가 사멸해가고 외래어, 잠말말이 일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비극적현실이다. 모든 것이 체모는 있는 것 같으나 껍데기뿐이고 제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자주의 불모지, 사대의존의 서식장이다. 해방이 되어 75년, 세기도 바뀌었지만 사대의존이 정치생리로, 사회풍토로 되어 있는 자주의 불모지, 존엄의 매창지가 바로 남조선이다. * * 빛과 어둠, 자존과 의존으로 비쳐보는 조선반도의 북과 남이다. 민족의 밝은 미래는 자주와 존엄에 있다. 반면에 사대의존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자주와 존엄에 살겠는가, 예속과 굴종으로 계속 연명하겠는가. 시대와 력사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 김정혁

자 존 과 의 존

세계가 놀라는데가 바로 그것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불허하고 그 어떤 정치지진이나 경제풍랑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 제도에 있어서 탈선하지 않는 나라, 세계대전을 치르고도 남을 군사위협도 자위의 역력력으로 물리치고 자주권과 존엄을 산악처럼 지켜내는 나라, 대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력사의 흐름을 주도해가며 강국들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기지의 나라. 19세기말 조선을 탐방한 유럽의 한 작가는 《호미와 황새총, 이것이 봉건수레를 끌고가는 조선의 모습》이라고 평한 적이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공화국은 사실상 위대하고 행성의 절대병기들을 소유한 군력으로 강대하며 마를 줄 모르는 자립적민족경제의 지력으로 위풍당당하다. 지난해 백두산기슭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행성을 진감시켰다. 삼지연, 중평, 양덕... 곳곳에 웅장하게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바라보는 공화국인민의 얼굴마다에는 환희와 긍지가 가득하다. 그들의 웃음비끼는 눈물에 희약의 고난속에 창조한 기적과 승리의 만단사연이 담겨져 있다.

물 한방울에 우주가 비친다고 한다. 지금 백두산으로, 《백두산대학》으로 달려가는 공화국인민의 발걸음에서 더 밝은 레일에도 향한 공적투쟁과 전진속도, 무한대 힘의 원천도 알 수 있다. 정의의 힘으로 온갖 불의를 쳐물리쳐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뜻이 나아가는 담차고 강인하고 거대한 공화국의 모습이다. 하기에 세인은 적대세력들의 반공사대입찰책동은 한계

거리마다 솔향기 더욱 짙어간다



문화국에서 봄철나무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요즘 평양시의 곳곳에 많은 소나무를 심어 거리의 풍치를 돋우고있다.

평양시에서는 지난해의 경험에 토대하여 관광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들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갔다.

가만, 내 한번 써보시

에서 나무선정과 구멍이 파기, 물주기 등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소나무심기를 질적으로 끝내었다.

사시정월 푸르른 국수의 기상과 정서가 잘 살아나게 소나무군락을 조성하고 꽃관목을 많이 심어 그 주변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도 원림설계의 요구대로 진행하였다.

서성구역, 모란봉구역에서는 영웅거리와 그 주변의 원림환경에 어울리도록 키 큰 소나무들로 가로수들을 조성

중구역, 평천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에서도 새로 심은 소나무주변에 생태학적으로 잘 어울리는 진달래와 자연바위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국수로서의 품위가 살아나게 하였다.

서성구역, 모란봉구역에서는 영웅거리와 그 주변의 원림환경에 어울리도록 키 큰 소나무들로 가로수들을 조성

한데 맞게 더 많은 소나무들을 심어 가꾸고있다.

평양시에서는 소나무의 사름물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는 한편 소나무심기를 년차별로 전망성있게 계획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조선봉건왕조시기 명필로 이름났던 양사언(1517-1584)이 이웃나라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다.

한 부자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가니 방 한편에 커다란 병풍이 세워져있었다.

주인은 양사언에게 이 병풍에 자기 나라에서 글씨로 유명한 사람이 글분으로 글을 써 준다고 하면서 그의 필체를 보고 가라고 하였다.

양사언은 이웃나라의 명필을 보게 된것이 다행한 기회로 여겨져 동의를 하였다.

얼마 안 있어 화구통을 든 명필이 찾아왔다.

그 사람은 손님과 인사 나누고 곧 글을 쓰려고 글분을 아교에 개면서 주인과 글값을 흥정하였다.

상당히 높은 값에 주인은 난처해하면서도 손꼽히는 명필의 글을 받는다는 기쁨에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있던 양사언은 글씨를 숭상하는 사람

들에게 모욕을 끼치는 일로 생각되어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 사람이 병풍에 글을 쓰기에 앞서 초지에 락습으로 붓놀리는것을 보니 글체가 신중치 않아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다.

가만, 내 한번 써보시

히 바라보았다.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양사언이 적당한 붓을 골라 들고 병풍위에 휘두르는데 그 솜씨가 사공이 노졌듯, 학이 춤추듯 하였다.

그의 손이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어지러던 병풍면에 금빛찬란한 글체들이 환연히 나타났다.

주인은 벌떡 일어나 눈을 비비고 바라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고 명필이라는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였다.

주인은 그런 훌륭한 글씨를 남겨준 양사언에게 감사하다고 거듭 치하를 하며 그 값을 어떻게 치워야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제가 글씨를 배운것은 팔아먹고 배운것이 아니니 어찌 돈과 바꾸겠습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오.》

이때로부터 명필로서의 양사언은 이웃나라에도 소문이 나게 되었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상차림 풍습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식생활관습에서 독특한것은 상차림이다.

—독상차림
독상은 한사람이 식사할 수 있도록 차린 음식상을 말한다.

독상은 존대한다는 뜻으로 주로 가장(할아버지, 아버지)이나 늙은이, 손님에게 차린다.

독상차림에서 밥그릇은 상을 받은 사람의 왼쪽에, 국그릇은 오른쪽에 그리고 간장, 고추장종지들은 상가운데 놓고 찬그릇들은 그 주변에 질서있게 놓는 다음 숟가락과 저가락은 국그릇옆에 놓았다.

접시에 담은 부식물의 가지수에 따라 3첩, 5첩, 7첩, 9첩반상이라고 한다.

반상은 하루 세끼 정상적으로 차리는 음식상이다.

반상에서 첩이란 뚜껑을

덮은 반찬그릇을 말하는데 국과 김치, 양념장은 반찬의 가지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두리반차림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을수 있게 차린 음식상을 두리반차림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가정의 가족성원들이 한상에 음식을 차려 놓고 식사하였는데 그후 점차 온 가족이 한상에 단란하게 모여앉아 먹게 되었다.

두리반차림은 밥과 국만은 각기 따로 담아놓고 그밖의 찬류는 보시기와 접시에 담아 함께 먹도록 하였으며 농가에서는 국그릇만 각기 따로 놓고 밥은 큰 그릇에 담아 상가운데 놓고 각기 떠먹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웃어른들의 밥은 따로 담아놓았다.

본사기자

에로부터 우리 민족은 파스한 4월의 계절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생활풍습을 창조하고 계승해왔다.

4월의 절기들에는 청명과 곡우가 있다.

청명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는 절기라는 뜻이다.

청명날 우리 선조들의 생활풍습에서 중요한것은 조상의 묘를 찾아보는것이였다.

이날에 조상의 묘를 찾은 사람들은 봉분을 손질하고 묘주변을 정리하였으며 제를 지내고 여러가지 민속음식을 먹었다.

청명날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취유떡, 청포무침과 고사리, 곶비, 두릅, 참나물 등으로 만든 산나물무침을 들수 있다.

청명을 계기로 우리 선조들은 지붕기와 올라타손질을 비롯한 집수리를 진행하였다.

곡우는 곡식이 자라는데

4월의 절기와 민속

유익한 비가 내리는 절기라는 뜻이다.

지난 시기 사람들속에서는 곡우때 오는 비를 매우 중시하였다.

곡우에 사람들은 벼, 조, 고구마, 참깨 등 작물의 씨뿌림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는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때이므로 우리 선조들은 농사일로 바쁜 날들을 보냈다.

청명, 곡우절기에 우리 선조들은 강하천과 바다에서 물고기잡이를 진행하였다.

특히 대동강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송어, 잉어, 누치와 같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처럼 우리 겨레는 오랜 옛날부터 4월 절기의 계절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생활풍습을 창조하고 련련히 이어왔다.

올해의 청명은 4월 4일, 곡우는 4월 19일이다.

본사기자

은 바위 가운데서 동쪽바위가 바로 훗날이판도형이다.

바위에도 인물상과 함께 29개의 흉구멍들이 (⊕) 모양으로 새겨져있는데 이것은 1648년에 나온 《송도지》라는 책에 실린 훗날이판도형설명문과 같은것이다.

훗날이판도형이 고구려유적이었던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훗날이판도형이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고구려를 거쳐 오늘날까지 민족적 전통으로 계승발전되어온 민족놀이라는것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다른 나라들에는 이와 같은 훗날이라는것이 없다. 다시말하여 훗날이라는 우리 민족에 의해 창조되고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민족놀이이다.

박현성



훗날이 (조선봉건왕조시기 그림중에서)

이름난 서예가 한호

조선봉건왕조시기 서예가 한호는 자는 경홍이며 호는 석봉, 청사이다.

1567년에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글씨를 잘 쓴것으로 하여 사자관의 벼슬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서예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있었으나 생활난으로 땅바닥이나 돌위에 글을 써보면서 재능을 연마하였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비상한 정열을 가지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름있는 서예가들의 글씨를 익히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서예의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의 필적은 오늘날도 많이 전

해지고있는데 그중에서 널리 알려진것은 《천자문》이다.

이밖에는 서경덕의 비문을 비롯 많은 비문도 썼으며 그 글들은 비석에 새겨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는 모든 글씨를 특히 행서, 예서를 잘 썼고 액자글씨가 더욱 뛰어났다.

옛 기록에 의하면 그의 글씨는 《성난 사자가 바위를 뚫어놓는듯, 목마른 천리준마가 샘물을 찾아 내달리는듯》 기백이 있다고 하였다.

한호의 글씨는 당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한호는 김정희와 함께 조선봉건왕조시기 서예가로서 생명을 이룬다.

본사기자

미련한 건달군

옛날 한 건달군이 형벌을 받게 된 부자대신 매를 맞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정작 판가에 끌려가보니 더욱 무심중이 났다.

건달군은 받았던 돈을 모두 형리에게 돌려주어 가벼운 매를 맞게 되었다.

《글씨를 돈과 바꿀수 없다》

《아니, 저렇게 아교에 긴 글분을 마구 뿌려놓는 병풍을 이제 어디에 쓴단 말이시요?》

《아니, 저렇게 아교에 긴 글분을 마구 뿌려놓는 병풍을 이제 어디에 쓴단 말이시요?》

주인과 명필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 어쩔줄 몰라 하였다.

양사언은 한결을 물러나서 마른 담뱃피 비품을 맞은듯 글분에 얼룩진 병풍을 이속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양사언이 적당한 붓을 골라 들고 병풍위에 휘두르는데 그 솜씨가 사공이 노졌듯, 학이 춤추듯 하였다.

그의 손이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어지러던 병풍면에 금빛찬란한 글체들이 환연히 나타났다.

주인은 벌떡 일어나 눈을 비비고 바라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고 명필이라는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였다.

주인은 그런 훌륭한 글씨를 남겨준 양사언에게 감사하다고 거듭 치하를 하며 그 값을 어떻게 치워야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제가 글씨를 배운것은 팔아먹고 배운것이 아니니 어찌 돈과 바꾸겠습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오.》

이때로부터 명필로서의 양사언은 이웃나라에도 소문이 나게 되었다.

본사기자

사화

력서의 발전에 기여한 강보(5)

안항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력법에서는 황도(해결)요 적도(천축에 수직이면서 천구를 지나는 평면과 천구가 사귀어 생기는 원)요 하는걸 가지고 머리를 앓는다는데 그것들의 어느 요진통에서 수치를 하나 먼저 구해내고 그를 디딤돌로 삼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어떻게...》

《아...》

뛰어난 수재의 눈앞에서 천가지만가지의 복잡한 계산식들이 무질서하게 떠돌았다. 그러더니 점차로 류사한 계산식들끼리 구획을 지으면서 질서정연하게 가로세로 렬을 지었다.

한동안 일어나갔던 멍청히 서있던 강보의 얼굴에 회색이 어려졌다.

《선생님! 뭘... 뭘것 같소이다.》

《뭘것 같따구?》

강보는 신심에 넘쳐 부르짖었다.

《선생님께서 소생의 막혔던 생각을 툴리주셨소이다. 소생은 정말이지 요진통을 찾아낼 생각은 못했소이다. 듣고보니 동지날로부터 경과하는 날수에 따르는 영축적(현대천문학에서 중심차에 해당됨)을 정확히 구해내는 것이 요진통으로 뭘것 같소

있을 계산법을 찾는 일에 달라붙었다. 온 태사국이 그를 도와주었다.

그가 모를 박은것은 《태양의 동지 천후에서 영축적(차)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황도(황도와 적도간의 환산률) 같은것도 얼마든지 계산해낼수 있겠소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얻은 수치들을 군사들이 대오를 짓듯 종이에 칸을 긋고 부류별로 써놓으면 립성(수표)이 될것이니 그 립성만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마음먹은대로 세력서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것 같소이다.》

《허— 난 영축적이니 황적도들이니 하는 말들은 듣고도 죽으라는 소리인지 살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 여간 자네가 승산이 있더니 뻔했, 뻔어.》

강보는 비로소 산천구경을 마련한 스승의 깊은 마음을 알수 있었다.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들게 짙은 안개로 자욱히 덮여있는 수식의 날바다우에서 땅 짙고 헤엄쳐나올수 있는 비결을 뒤흔준 스승에게 어떻게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스승도 고맙고 어머니도 고마웠다.

미궁같은 렬서의 세계에 현대천문학의 열쇠를 찾아든 강보는 다음날부터 다시 금 렬서를 손쉽게 수정할수



시력립성을 만들고있을 때 어머니 김씨도 그에 질세라 하얀 열두쪽명주천에다 한뼘 두뼘 농가마을의 풍경을 수놓아갔다.

그의 눈에는 계절따라 달라지는 고향풍경이 환히 안겨져있었다.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4계절로 나누고 거름을 실어내고 씨를 보는 강보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수를 놓는 한뼘두뼘이 자기가 만들려는 립성의 매 칸마다에 정확한 수치를 구해내서 적어넣는 일처럼 여겨졌다.

그 한뼘두뼘이 모여 웅근 그림을 이루듯이 영축적같은 날수에 따르는 매 칸들의 수

와락 품에 안았다.

《어머니!》

《내 아들이!》

김씨의 얼굴로도, 강보의 얼굴로도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아, 이런 땀이 사람은 보람이 아니겠는가...

강보는 아직은 20대 초엽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계산식을 발견하고 렬서를 해마다 손쉽게 고칠수 있게 하는 수표를 만들어내었다.

이제는 세세년년 수시력립성의 덕택으로 절기가 똑바른 렬서가 나올수 있게 되었다.

수시력립성은 내놓자마자 온 세상이 다투어 받아들였다.

강보가 만든 립성을 보고 이웃나라사람들은 이야말로 하늘을 놀래운 기적이면서 과연 고려는 문화의 대국이라고 부러워하였다.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세 수시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도서 《태릉통계》에 강보의 립성을 실었다.

한생을 렬서를 일신하는데 바친 강보는 1343년에 렬법의 비결을 고스란히 공개하는 《수시력립법서》를 내놓았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영국의 수학자 오너에 의해서 4차방정식이 얻어졌으니 강보는 실로 세계적인 천문학자, 수학계의 거성이었다.

세상을 놀래운 과학적발명을 한 천재의 뒤에는 언제나 그를 이끌어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법이다.

(끝)